

# { 전국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

## 기자회견 보도자료

### <기자회견 순서>

-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기간 상황 보고
-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문 낭독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여대협 대 국회 촉구문 낭독
- 질의 응답

### <보도자료 순서>

-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 2
-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명단 ... 3
- 호주제 폐지를 위한 대 국회 촉구문 ... 5

일시 : 2003년 10월 17일 오전 11시

장소 : 경희대학교 종합강의동 앞

#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올해 들어 '호주제 폐지'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오고 있다. 지난 몇 년간 계속되어왔던 호주제 폐지 운동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호주제 폐지에 대한 국민적 여론도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나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국민적 공감대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2004년 총선에서의 보수층 표를 의식해 여전히 눈치보고 자기 잇속 챙기기에 여념이 없어, 호주제 폐지는 그만큼 더더지고 있다.

여기에 우리 대학생들은 호주제 폐지를 더욱 앞당기고 양성평등한 세 날을 열어가기 위해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에 적극 동참하고자 한다.

## ■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여성을 '2등 인간'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

호주제는 민법에서 '호주'를 중심으로 가족을 구성하는 제도이며, 호주제를 통해 가족 구성원 개인의 신분변동사항(출생, 혼인, 사망, 입양 등)을 기록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는 오로지 '호주'만이 주인공이 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은 '호주'의 변두리로 밀려나 호주와의 관계로서만 자신을 나타낼 수 있게 되어 있다.

'호주'는 대를 이을 남자가 된다. 남성을 중심으로 호주가 승계되고, 호적이 기재되며, 성씨가 정해지게 되어 있다. 호주는 할아버지→남편→아들→손자로 대물림되며, 그 '대'가 끊겼을 때에만 비로소 여자가 호주가 될 수 있다. 즉, 호주제에 따르면 대한민국의 모든 남자는 중심에, 모든 여자는 주변에 서 있는 셈이다.

이런 호주제 때문에 한해에 3만명의 여아가 낙태당하고 있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차별의식이 뿌리박혀 있다. 또한 호주제로 인해 이혼 가정, 한부모 가정 등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게다가 호주제는 일제시대 천황 통치체제를 굳건히 하고, 식민수탈과 징병 등을 편하게 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놓은 제도일 뿐이다. 일본에서는 이미 1948년에 폐지된 호주제를 우리가 고수해야할 이유는 없다.

## ■ 우리 대학생들이 살아갈 21세기에 더 이상 '호주제'는 없다! ■

구시대적이고 성차별적인 '호주제'는 우리가 살아갈 희망찬 21세기에는 어울리지 않는 법이다.

호주제를 폐지하는 것은, 잘못된 법을 없애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남아선호사상의 토대가 되어온 호주제를 폐지함으로써 우리 사회에 뿌리박혀있는 성차별의식을 조금씩 극복해나가고 양성평등의 토대를 점차 쌓아가는 것이다.

## 이에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은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1. 여성을 남성의 종속적인 위치로 규정하고, 성차별을 만들어내는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자!
2. 모두가 호주제 폐지 운동에 적극 동참하여 호주제를 하루 빨리 폐지하자!
3. 개인의 신분관계를 합리적으로 표시하는 평등한 신분등록제를 지지한다.
4. 정부와 각 당, 국회는 총선에서의 보수표를 의식하지 말고 호주제 폐지에 적극 나서라!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참가자 일동

# 전국 대학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호주제 폐지 선언 명단

## {경기대학교}

경영학부 비대위원장 이현녕  
관광경영학과 학생회장 장재용  
다중매체 영상학부회장 박재영  
행정학과 학생회장 황진석

## {경북대학교}

가정교육학과 학생회장  
경영학과 학생회장  
경제통상학과 학생회장  
교육학과 학생회장  
농화학과 학생회장  
법학과 학생회장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아동가족학과 학생회장  
원예학과 학생회장  
윤리교육학과 학생회장  
임학과 학생회장  
자율전공부 학생회장  
컴퓨터공학과 학생회장  
한문학과 학생회장

## {경희대학교}

한의대 (학생총회를 통해 결정)  
이학부  
관광학부  
외식산업학과  
컨벤션산업학과  
(이상 4개과는 과 학우들의 인터넷 투표를 통해 결정)  
국어국문학과 학생회  
언론정보학부 학생회

## {고려대학교 서창 배움터}

고고미술사학과 학생회장 전선민  
물리학과 학생회장 김두현  
생물공학과 학생회장 이주영

식품생명공학과 학생회장 이봉수  
전자 및 정보공학부 학생회장 장동석  
정보통계학과 학생회장 김기일

## {광주대학교}

언론광고학부 학생회장 김휘성  
법정학부 학생회장 구희승  
유아교육학과 학생회장 문지욱

## {서원대학교}

국문과 학생회장 안승혜

## {영남대학교}

국문과 학생회장 김홍식  
국사학과 학생회장 김치훈  
사학과 학생회장 권익찬  
영문과 학생회장 황병렬  
중문과 학생회장 이준호  
철학과 학생회장 여선동  
국어교육과 학생회장 박진석  
영어교육과 학생회장 이용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이종립  
특수체육교육과 학생회장 손광모  
한문교육과 학생회장 이형우  
경영학과 학생회장 이철원  
경영학과 학생회장 예희웅  
경제학과 학생회장 박경훈  
법학과 학생회장 이영훈  
지역개발학과 학생회장 박영환

##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학생회장 장명아  
경제학부 학생회장 양정희  
문헌정보학과 학생회장 김장수  
역사교육과 학생회장 나재권  
윤리교육과 학생회장 김유진

## {조선대학교}

경제학과 대의원 박두수, 1학년 대의원 김지정  
무역학과 학생회장 김선명  
무역학과 대의원 강문주, 조신영  
건축과 대의원 이용선, 이승철  
기계공학과 학생회장 김경규  
기계공학과 대의원 최재문, 정도영  
기계공학과 1학년 대의원 김근오  
토목공학과 학생회장 김재한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진창범  
환경공학과 대의원 유광호, 이선배  
생물교육과 학생회장 김민정, 대의원 안지훈  
지구과학교육과 학생회장 최원영  
지구과학교육과 대의원 손경근, 문성식  
신문방송학과 2학년 대의원 임하영  
신문방송학과 1학년 대의원 김성빈  
정치외교학과 학생회장 임현  
정치외교학과 3학년 대의원 이진희  
정치외교학과 1학년 대의원 정환봉  
약학대학 3학년 대의원 이정행, 1학년 대의원 이창현  
러시아어과 학생회장 김성진, 2학년 대의원 나영선  
스페인어과 학생회장 곽봉석  
스페인어과 대의원 김민영, 한은정, 조윤희  
아랍어과 대의원 현지희  
일본어과 부회장 김동일, 대의원 김기한  
중국어과 대의원 추연학  
국어국문학과 대의원 허민지  
철학과 학생회장 박형복  
치과대학 학생회장 이중희  
치과대학 부회장 김승미  
치의예과 학생회장 손정석  
치의예과 1학년 대의원 최홍규, 2학년 대의원 박종일  
디자인과 학생회장 박용만  
만화 애니메이션 학생회장

## {창원대학교}

국제관계학과 학생회장 김찬중  
불어불문학과 학생회장 김광진  
사회학과 학생회장 김세민  
아동가족학과 학생회장 김은자  
영어영문학과 학생회장 박소현  
철학과 학생회장 신성철  
행정학과(야) 학생회장 강은진

## {충북대학교}

경제학과 학생회  
사회학과 학생회  
심리학과 학생회  
정치외교학과 학생회

## {한국외국어대학교 용인배움터}

노어과 학생회장 이재화  
루마니아어과 학생회장 김정원  
무역학과 학생회장 양용희  
물리과 학생회장 한일석  
불어과 학생회장 복영태  
사학과 학생회장 김성민  
생명공학과 학생회장 정경재  
서어과 학생회장 위현석  
수학과 학생회장 서정우  
영어과 학생회장 어중선  
인도어과 학생회장 박병준  
정보통신공학과 학생회장 류기훈  
중국어과 학생회장 류승우  
철학과 학생회장 윤장유  
통계과 학생회장 이영준  
포어과 학생회장 한세웅  
폴란드어과 학생회장 이지영  
화학과 학생회장 배현철  
환경공학과 학생회장 구자용

**총 109개 과학생회 및 과학생회장 참가**

# 국회는 이번 정기국회 내 반드시 호주제를 폐지하라!

## - 호주제 폐지를 위한 전여대협 대 국회 촉구문 -

호주제 폐지는 이제 대중적인 언어가 되었다.

호주제 폐지에 대한 공감대는 이미 국민적 여론이 되고 있다.

대부분의 설문조사에서도 '호주제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은 과반수를 넘고 있으며, 특히 호주제의 직접적인 피해 고통받아온 여성들은 7~80%가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고 있다.

호주제의 문제점을 다룬 드라마가 인기를 끌고 있고, 인터넷 곳곳에서는 호주제 폐지를 주장하는 네티즌들이 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국민적 공감대에 공감하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바로 많은 국회의원들이 그들이다.

호주제는 남아선호사상을 낳는 제도적 뿌리이며, 여성에게 현대판 삼종지도를 강요하는 성차별적인 법이다.

그래서 호주제를 폐지하기 위한 운동은 아주 오랜 기간 계속되어왔고, 특히 지난 몇 년간 큰 목소리를 내어왔다.

게 이어져온 호주제 폐지 운동이 최근 들어 서서히 결실을 맺고 있다.

그런 결실의 하나로, 지난 5월 27일에는 국회의원 52인에 의해 '호주제 폐지를 위한 민법 중 개정 법률안'이 발의되었

하지만 호주제 폐지를 포함한 민법개정안을 발의한지 2달이 지나서야 겨우 국회 법사위에서 심의했다.

호주제 폐지의 첫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는 15명의 국회의원 중 단 4명만 '호주제 폐지 찬성' 입장을 밝히며, 나머지 11명의 국회의원들이 '반대' 혹은 '유보' 입장을 표명하면서 호주제 폐지를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내년에 있을 총선에서 보수기득권층의 표를 얻기 위해 눈치를 보며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이다. 호주제 폐지에 찬성하는 무수한 국민적 여론은 안중에도 없는 것이다.

그러나 국회의원들은 정확히 알아야할 것이다.

호주제를 기어이 존속시키려는 보수기득권보다, 호주제 폐지를 바라는 국민들이 유권자의 절반 이상을 이루고 있다. 이 토록 눈과 귀를 막은 국회의원들에게 돌아갈 것은 국민들의 원성일 뿐이다.

호주제를 폐지하기를 염원하는 국민들은 호주제 폐지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을 내년 총선에서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 특히 우리 대학생들은 거기에 앞장설 것이다.

더 이상 국민이 국회로부터 등을 돌리지 않기를 진정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호주제를 폐지하라!

특히 국회 법사위에서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는 심규철, 최연희, 최병국 한나라당 의원, 자민련 김학원 의원, 그리고 '유보' 입장을 밝히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이제라도 호주제 폐지에 즉각 나서라!!

또한 호주제 폐지 반대 입장을 유포하고 있는 최병렬 대표를 포함한 한나라당의 다수 의원들은 적극적으로 호주제 폐지에 나서라!!

성차별적인 법을 바꾸고자 하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호주제를 당장 폐지하라!!

더 이상 보수기득권층의 눈치를 보지 말고, 호주제 폐지에 앞장서라!!!

우리 대학생들은, 국회에서 호주제 폐지 입법안이 통과되고, 성차별적인 제도가 바뀔 수 있도록 가장 선두에서 싸워갈 것이다.

2003년 10월 17일

9기 전국여대생대표자협의회